

비혈연 골수이식에 관한 뉴스레터

통권 14호

발행일 : 2001.03.20

[기증자이야기]

수술이 끝난 후...

김양중

일상속에서 헌혈에 대한 거리낌없는 생각으로 혼자서도 헌혈셀너를 찾아 헌혈을 하고 그 증표인 헌혈증이 지갑속에 하나, 둘 늘어가는 재미가 솔솔한 즈음... 아마도 99년 2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헌혈을 하고 누워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무심결에 보아 넘겨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벽에 걸린 성덕 바우만군의 골수기증 캠페인광고가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와 직원에게 골수 기증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골수은행 등록을 위한 채혈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과 함께 채혈 시기에 대한 직원의 안내를 듣고 헌혈의 집을 나섰습니다.

채혈이 가능한 날이 되어 부대를 나와 헌혈의 집에서 간단한 채혈을 하고 다시 부대로 돌아왔는데 주변의 동기생들이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에게도 제가 들은 골수기증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어 역시 그들도 골수기증을 위한 채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나고 골수기증을 위해 등록을 했다는 것도 까마득히 잊고 있을 무렵 작년 8월 어느날, 퇴근후에 부모님께서 스치는 말씀으로 주변에 골수 기증을 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 별거 아니라고 여겼기에 흔쾌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부모님은 수회에 걸쳐서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고 자꾸만 반복되는 질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골수은행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쭙어 보았더니 역시나...3일 전 어느 환자와 HLA가 일치한다는 연락이 집으로 왔고, 그 전화를 받으신 후 부모님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시고 주변분들에게 묻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럼 말을 듣고서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마저도 들었으니까요. 다음날 출근하여 한국골수은행협회에 전화를 걸어 담당 코디네이터인 김은정씨께 세부적인 안내를 받은 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차 검진과 2차 검진을 끝내고 직업이 군인인 관계로 부대의 허락도 받았으며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도 한 후 기증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국을 휩쓸고 있던 의약분업관련 의료파업의 여파가 골수 기증을 위한 수술 병원을 바꾸고, 검사를 또다시 하는 등 수술 일

정을 재조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기증자인 저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애타게 수술을 기다리던 환자는 아마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드디어 수술 일자가 정해져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정결히(?)하고 아침 일찍 수술 일정에 맞추기 위한 금식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어전 7시30분이었지만 6시경에 담당 간호사가 주사바늘을 앞세워 깨우는 바람에 수술복으로 갈아 입고 수술실로 이동, 수술실에 들어 와서는 잠깐 말 몇 마디 한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단지 수술실에 대한 기억은 매우 추워서 이불하나 더 덮은 것, 마취가 깰 즈음에는 담당 간호사가 얼굴을 너무 세게 때려서 뺨이 빨개질 정도로 아팠던 것, 그리고 전날 금식으로 인해 배고픔이 밀려 왔던 것, 바로 춥고 배고픈 기억. 이것들이 제가 수술하는 동안과 수술 후 느낀 고통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저 역시 수술 전에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수술을 마치고는 그런 걱정들이 괜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은 수술한 생색(?)을 내며 편히 쉬었습니다. 골수 기증 후 2달이 지난 지금은 3월에 있을 마라톤 대회에 참가신청을 하고 완주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끝으로 안심하고 편안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도와주신 골수은행협회의 김은정 코디네이터와 망설임 끝에 승낙과 격려를 보내주신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이번 일을 계기로 골수기증을하기로 등록을 하 두 명의 후배, 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수혜자님께도 감히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골수기증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묶여 망설이는 분들에게 좀 더 큰 세상으로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

배영미

그러고 보니 벌써 1년이 지나고 겨울이 왔네요. 요즘 TV를 보니 많은 드라마에 백혈병이란 병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병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들이 꺼져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치 제 자신이 백혈병을 경험이나 한 것 처럼 가깝게 느껴지면서 99년 10월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하네요. 어떤 백혈병환자와 골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는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골수기증이라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인가? 그런 기회가 실로 주어지는 것인가? 등등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전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해도 일치할 확률이 너무나 적어 자신의 골수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들었는데 백혈병과 같은 나쁜 병에 걸린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처음에는 겁이 나기보다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후 실제 골수

기증 수술을 하게 될 당사자인 저는 덩덤하고 괜찮았었는데 저의 가족들이나 주위 친구들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아야만 하는 부모님 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골수기증에 대한 동의를 하고나서 다시 혈액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들을 한 후 수술을 받기도 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수술을 받기도 한 전날 골수은행에서 나오신 분들과 맛있게 저녁식사를 한 후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수술실로 들어갔죠. 난생 처음으로 입원을 하고 또 수술실에 들어가 보는 거라서 막상 들어가니 떨렸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슬슬 잠이 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깨어보니 수술이 다 끝났고 이미 저는 입원실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조금 걱정을 했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참을만한 정도의 통증으로 허리 밑쪽이 조금 욱신거리고 쑤시는 정도였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손님들이 병문안을 오셨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주셔서 먹고, 쑥스럽지만 제가 한 행동에 비해 칭찬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들로만 가득 찼었던 99년 10월...

조금의 아픔은 있었지만 평소 저의 건강함이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다른 이를 도와줄 수 있게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런 기회를 주신 골수은행협회에도 참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제 골수를 받은 분께서 무사히 이식을 마쳐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귀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성호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사람들은 다양하게 모습을 바꿔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당장은 진리처럼 느껴지는 어떤 유행도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이면 유치하고 처리고 싫어지는 찌꺼기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늘 변함없는 것은 생명이 숨쉬는 곳에는 늘 아름다움과 귀함,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제가 골수 기증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의 상황은 무척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출산 준비, IMF로 인한 혼란스러운 직장 문제, 전제금 반환 문제 등...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골수 기증 수락 후 혈액검사기간 중에 심한 몸살 감기 후 찾아온 안면 근육의 절반이 마비되는 와사증이었습니니다. 한달 간의 약물 치료와 한방침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골수기증은 한 달 정도 연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정도 연기되면 제 골수를 받는 수혜자의 이식 성공률이 그만큼 더 낮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사증이 완전히 치료되기 전에 수술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골수기증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신앙의 믿음을 실천에 옮길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힘든 상

황이 제 자신을 자꾸 흔들어 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증에 대해 갈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골수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또 하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골수를 준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 순 없지만 생명을 주었다는 자부심에 무척이나 기쁩니다.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우선적인 조근은 골수은행협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반갑지 않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친절하고 지속적이며 사실적인 권유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협회 직원분들은 귀한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의 요청에 이제야 글을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반쪽을 만드세요!

정복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높은 언덕과 내리막길 그리고 평탄한 길 등 여러 가지의 길을 걸으면서 한 생을 마감하게 되겠지요. 그때에는 제가 그리 좋은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그 당시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제 눈에 비치는 어린아이의 맑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에 나와 있던 아이의 얼굴에는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없었습니다. 심한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죠. 평소에도 헌혈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로 그때 ‘골수기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골수기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골수기증 등록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더욱 따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등록 후 평생 한번도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마음이 많이 아파 차라리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지만 그 친구는 씩씩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사고는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제가 골수기증신청을 했다는 것조차도 잊게 될 무렵, 한국골수은행협회로부터 골수기증을 권유하는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 다. 전화통화는 길어졌고 그때 제 마음은 여러가지로 교차 되었지만 결론은 O.K.였죠. 이렇게 결정을 내리니 제 마음은 더욱 편안해 지더군요. 고통을 친구와 나눌 순 없지만 그래도 저와 피를 나눌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쁩니다. 비록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 반쪽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되어 기증을 하였고 기증 후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외롭고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도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것을 나눈다면 두배로 커질 것입니다. 혼자 웃는 것보다
둘이서, 그리고 다 함께 웃는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글재주가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느낀대로 그냥 몇자 적어봅니다. 사랑의 다리에 서 계신
당신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다리가 더욱 튼튼해져서 많은 사랑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수고
하세요.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

최준택

연말연시 라서 인지 병원에서 보는 TV에서는 어렵지만 힘들게 사는 사람들, 특히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을 다룬 특집 방송들이 이어졌습니다. 옆 침대에 계시는 아저씨가 눈치
를 보며 훌쩍거리시네요. 해마다 비슷한 방송들이 이어지지만 항상 찡한 감동을 느낍니다.
처음 골수 기증을 한 후 얼마 후에 저의 골수를 받은 환자가 다시 재발을 해 다시 저의 골
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 지금 두 번째 골수기증을 하고 병원해 입원해 있습니다. 아쉽게도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지내야 하지만 한편으론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직업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제일 가깝게 만날 수 있었기에 또 그 사람들이 뿜어
내는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2000년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제게 ‘골수기
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저와는 관계없는 먼 일로만 느끼고
있던 제 생애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일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리고 치과에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파서 병원에 가본 일이 없었던 저로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병상에 누운
사람들을 보고 또 그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짧은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명의 기증자를 찾은 끝에 마지막에 겨우 이식하게 된 사람, 세명의
기증자를 찾았지만 모두 거절해서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 돈이 없어 아예 이식을 생
각하지도 못하는 사람, 골수이식을 받는 환자들의 완쾌 확률, 골수기증 요청에 대한 응답확
률이 50%~60% 정도라는 것, 골수이식에 관한 주변의 잘못된 이해들 등은 많은 생각을 하
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골수기증을 위한 수술의 과정이나 결과들에 대해 말하면 결론은 너
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기증을 한 많은 선배들의 경험담을 충분히 접할 수 있어서
별다른 부담이 없어서인지 그냥 헌혈을 조금 길게 한 정도랄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오해 할 사람들도 있게 될까 걱정이지만 너무 오래 누워있어서 허리가
빠근하고 또 많이 먹어 몸무게가 늘어난 것은 안타깝지만 총각이 천사들을 만난다는데 그것
쯤이야... 정상인으로 수술실에도 들어가 봤고, 진료차트를 들고서 저 혼자 병원을 이리저
리 돌아다니니깐 간호사들도 ‘저 사람 건강해 보이는데 무슨 병이래?’하고 모두 궁금하게

만든 일 등 처음 접해 본 일들을 추억해 보면 다들 무척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아무튼 좋은 인생 공부였습니다. 언제 이런 배우의 기회가 있겠어요?

골수기증에 대한 자세한 과정이나 설명은 골수은행협회에서 나오는 소식지나 협회 직원들을 통해 듣기를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만일 당신이 골수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거나 혹은 어느 때 집으로 한국골수은행협회 이름으로 된 서류봉투가 배달되고 안에 소식지가 들어 있을 때 봉투 안쪽을 잘 살펴보세요. 당신의 골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A4용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봉투를 뒤집어 터는 바람에 그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달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식지에 A4용지를 끼워서 넣겠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앞의 내용처럼 봉투가 배달되고 당신의 대답을 기다릴 때 모든 조건이 허락하는데 단지 막연한 두려움이 당신의 대답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에게는 당신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또 당신에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또 사랑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차,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건 당신이 주사바늘에 익숙하게 될 거란 사실입니다. 바늘이 크건 작건...(하하하~)

[수혜자이야기]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노희진

우선 저는 제가 앓고 있었던 병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랜 투병생활 중에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병생활 중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완치판정을 받은 지금, 그것은 제 자신이 성숙해지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88년 9월 운동회 연습에 지칠줄도 모르고 있던 저는 아직 7살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평상시에 잘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던 엄마께서는 저를 병원에 데리고 다녔지만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았습니다. 단지 소모성 체질이라고…

그런데 운동회 연습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었는지 새벽에 깨어보니 베개가 젖을 정도로 코피가 났습니다. 걱정이 된 엄마는 저를 건강진단 전문병원에 데려 가셨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혈액수치가 매우 낮다고 하시며 선생님께서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소개장을 써 주셨습

니다. 급히 검사한 결과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저에겐 감당하기 힘든 병이었을 겁니다. 바로 입원하여 ALG라는 약물치료를 시작했고 이때 혈소판 수치가 2000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소판 수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 엄마는 우시면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벽에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라는 벽보를 부치시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 벽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를 제공하겠다고 몰려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끈끈한 정과 사랑은 엄마를 감동시켰고 저는 덕분에 살아나서 주재원으로 일본에 가 계시는 아빠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함께 가지 못하고 먼저 혼자 가 계셨던 아빠는 일본에 혈액질환으로 유명한 병원이 많다고 일본에서 치료를 받아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사히 아빠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저는 본격적인(?) 투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에 일본으로 가서 만8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일본에 온지 얼마 안돼서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에 놀라 코피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동경에 몇 십년만에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평상시 10분이면 걸어가는 거리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다니지 않아 40여분을 아무도 밟지 않은 새벽 눈길에 빨간 피를 흘려가며 엄마와 함께 걸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 후 아무리 치료를 해도 멈추질 않자 선생님께서는 거즈를 뭉쳐 실로 묶어 목과 코의 통로를 이어 막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입원하여 일주일을 눕지도 자지도 먹지도 못한채 90°로 앉아 지냈습니다.

그 후 ALG치료를 몇번이나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어 약을 다 끊고 수혈만 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숨가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던 중 기다리고 기다리던 골수일치자가 있다는 소식에 가족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몇 개월에 걸쳐 준비한 끝에 이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날짜가 잡히고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던지... 한국에 계시는 친척분께 다음에 갈 때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했는데... 최종검사를 마치고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골수기증하기로 하셨던 분이 기증거부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집에 돌아와 엄마와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이젠 진짜로 죽는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 1997년 1월에 귀국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삼성의료원 이흥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시 예전의 자료를 보신 후 골수이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기증자와의 유전자형이 한두개가 틀리게 나왔고 이 상태에서 이식을 한다면 성공률이 20%미만이라고 하셨지만 전 그 20%미만의 성공률에 제 삶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것들은 오직 이식을 한다는 마음에 들떠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어 1997년 3월 27일로 이식 날짜가 잡혔고, 3월18일에 입원하여 머리를 자르고 히크만을 삽입한 후 무균실에 들어갔습니다. 며칠간의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 후 기다리던 3월27일이 왔습니다. 골수가 제 몸에 들어 가는 동안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식이 성공하기를...’ 또 제게 골수를 주신 분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식 후 며칠이 지나고 숙주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광출혈, 장출혈, 혈압상승, 혈압저하, 뇌출혈, 경기, 경련, 며칠간의 실명, 나올 수 있는 모든 숙주반응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고 제 몸이 유별난건지 다른 사람들에게겐 잘 맞는 약이 제겐 큰 부작용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지자 원목실 수녀님께서서는 엄마께 종부성사(카톨릭에서 죽기 전에 주는 마지막 기도)를 주자고 권하셨고 이홍기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이번에는 힘들 것 같으니 받으라고 하셔서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종부성사를 주셨는데 맨끝에 ‘아멘’이라고 하시는 순간 의식이 없는 제가 목주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저의 살고싶은 소망이 대단했나봐요.

수녀님께서서는 나가시면서 “희진이는 꼭 나올거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며칠 후, 전 긴 잠에서 깨어났고 혈액수치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여 선생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어 치료를 해보자며 퇴원을 허락하셨습니다. 3개월을 먹지 못해 코에 줄을 달아 영양을 보충하고 있었지만 결국 2000년 3월에 기다리던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13년간의 투병생활이 끝난 지금 저는 제가 하고 싶어하던 제과제빵과 수화를 배우고 백혈병후원회인 ‘새빛누리회’에서 자원 봉사를 하며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투병생활은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더욱 성숙해진 나를 느낍니다.

끝으로 제게 골수를 주신 기증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편지글

엄마, 파이팅!

2살나기 딸아이가 감기로 잠시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으로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제가 작게만 느껴지고 부끄럽습니다.

골수기증이라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고 중요한 건 제 의지였는데 몹시 혼란스럽더라고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작은 여자아이를 봤을 때 밤잠을 설치며 골목거리는 딸아이를 보며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자가 아닌 엄마 된 자격으로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가슴앓이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감히 짐작도 할 순 없지만 어머니 당신이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받아서는 안 될 교통비까지 받아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꼬마 아가씨(?)가 부디 꼭 건강해져서 퇴원할 때 예쁜 원피스 한 벌을 저 대신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자와 구두가 있으면 더욱 예쁘겠지만 그건 어머니께서 준비해주세요!
새학기 땀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 손을 잡으며 학교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는 한번 해볼만 하던데 제가 초보 엄마라서 겁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
요!

“어머니~”

“이제 그만 우세요!”

“우리 여자가 아닌 엄마의 자리에서 파이팅 해요!”

꼬마 아가씨와 이제 막 엄마, 아빠 할미를 배우는 제 딸아이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요!

- 기증자 정복인 올림

혼자가 아니에요!

올 겨울에는 눈이 무척이나 많이 왔죠!

창 밖으로 보이는 눈이 올해에는 유달리 밝아 보입니다.

전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과 닮은꼴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뿐 아니라 모든 골수 기증자분들도 아마 멋지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올해처럼 밝은 세상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은 금방 지나고 이렇게 환한 겨울을 아주아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포근하군요.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 기증자 문영란 올림

[외부원고]

생각하는 페이지

사랑한 적이 없다면

방랑중인 어떤 고행승이 한 작은 마을에 머무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 고행승을 찾아와 자신이 신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고행승이 그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나는 그런 세속적인 일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하고 그 사람이 대답했다.

고행승이 다시 물었다. “아직 한 번도 사랑의 고통을 느껴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구도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행승이 세 번째로 물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사랑한 적이 없었나요? 정말 한 사람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대망을 품은 그 남자는 약간 짜증스런 표정과 음성으로 대답했다. “실례지만 왜 똑 같은 질문을 자꾸 물어보십니까? 나는 사랑이란 글자를 건드린적 조차 없습니다. 나는 자각을 이루고 싶습니다. 신의 경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행승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만약 당신이 아무라도 좋으니 누군가를 사랑한 경험이 있다면, 사랑의 꼬리라도 잡아 본 적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초로하여 당신이 귀의하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친구여! 당신이 사랑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신을 향한 어떤 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좋은생각]에서 발췌-

진영이가 그리는 세상으로 가는 길

박봉순(허진영 어머니)

먹빛 같은 하늘이 내 작은 창문을 기웃거리며 지친 하루를 돌아보는 나를 깨운다. 이제는 쏟아낼 눈물도 토해낼 고통도 가뭇든 논바닥처럼 터버린 가슴인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달빛 닮은 하얀 얼굴을 하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물을 파내려가듯 설움이 복받친다. 93년 5월 천진한 아이의 웃음만큼이나 세상이 화사하게 피어나던 봄, 며칠째 계속되는 열감기와 눈꺼풀이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병원을 찾았다. 물론 그 전에 잦은 감기와 가끔 종아리에 멍이 들곤 했지만 이제 막 달음박질 재미에 빠져있는 세살박이 아이의 서툰 몸짓에서 생겨난 멍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찰하시던 의사 선생님은 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고 나는 단순히 감기가 깊어져 혹여 폐렴이 왔나보다 생각하며 검사를 위해 입원을 했다. 그러나 그날은 나와 내 아이의 삶에 마지막이라는 이름의 행복과 평화를 주던 밤이 되어버렸다. 그런 밤이 지나고 다가온 아침은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참혹한 운명의 시작임을 선고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준비없이 찾아온 불행은 추스릴 수 없는 눈물로 세상을 온통 뿌옇게 만들었다. 일상처럼 마주치던 사람들… 늘 지나치던 거리…

사람들은 자유롭게 호흡하는데 나는 질식할 것만 같았다.

왜 내게! 하필 우리 아이에게! 세상살이 이제 겨우 두 해를 넘겼을 뿐인데…

갑자기 세상속에서 나는 이방인이 되어 길을 잃고 방황했다. 그러나 살아온 두 해보다 더 긴 침묵속으로 빠져버릴지도 모를 두려움에 떨며 항암치료를 시작해야 했다. 아직 혈액조차 실어 나르기도 벅찬 혈관에 항암제는 무장한 병사처럼 진격해 들어갔다. 그리고 몸서리쳐지는 사투는 시작되고 아이의 입과 항문은 폭격맞은 폐허처럼 갈갈이 찢겨져 나갔다.

그뿐인가! 고통의 강도를 더해가듯 다 헤어져 버린 압안 가득 토해지는 구토, 계속되는 설사로 인한 엉덩이 괴사, 혼미한 상태의 고열, 혈소판 부족으로 주사 바늘만 달아도 터져버리던 혈관…

울며 발버둥조차 칠 수 없던 힘겨움 속에 동그랗고 맑던 아이의 눈은 서서히 죽음을 앞둔 초로의 눈처럼 빛을 잃어갔다. 고통의 흔적처럼 한 올 한 올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머리카락, 가슴에 품어주기에 애처롭게 말라버린 보드랍던 살갗, 항암제가 활쫓고 지나간 자리마다 상처와 고통만이 남겨졌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던 안타까움… 온전한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절망과 서글픔만이 아프게 가슴을 저며 왔다. 날마다 넘쳐나는 눈물로 아이의 병을 씻겨줄 수만 있다면…

그저 오래참고 오래 견디며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견고한 의지만을 아이에게 달라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애원할 수 밖에 없었던 허탈함… 그러나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다. 1년 6개월여의 항암치료와 그 끝날 것 같지 않던 고통의 날들도 조금씩 희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세월이 흐를수록 완치라는 소망이 가까이 와 있다고 믿어왔다. 너무나 소중한게 얻은 생명이기엔 너무나 힘겹게 다시 찾은 세상의 날들이기에 행여 다시 잃을까 다시 놓칠까 안절부절하며 조바심 태우며 살아온 세월이 6년, 한번도 가슴 펴고 크게 숨 한번 쉬어 보지 못했다. 품에서 멀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늘 내 시야에 두고 파수꾼처럼 지켜온 세월도 허망하게 99년 7월 10살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백혈병, 형벌과 같던 그날은 원망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어떻게,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럴줄 알았다면 그렇게 즐거워하던 놀이공원에라도 실컷 데려갈 것을…

이럴줄 알았다면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도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데…

이럴줄 알았다면 체육대회때 아이와 손잡고 신나게 달려나 볼 것을… 아이가 있어 행복했던 지나간 시간들이 속절없이 가슴으로 흘러내렸다. 겨우 6년을 꿈꾸기 위해 그 지독한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단 말인가!

사무치도록 갖고 싶었던 생명의 시간 그 짧은 행복…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떠밀려진 아이

…

고통을 배운뒤의 아픔은 더 처절하게 아이를 괴롭혔다. 수없이 쏟아지는 항암제,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혈관, 1차, 2차, 3차 거듭되는 항암 치료의 강행군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는 참담함이었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다. 골수이식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진영아 이제 바위처럼 단단한 생명을 위하여 조금만 참자! 지금처럼만 이대로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꾸나!

언제나 어린 몸을 파고드는 고통의 순간보다도 병실너머 바라만 보던 그리운 날들에 더 서러워 울던 진영이! 기다린만큼 더 아름다운 세상, 참아온 날보다 더 빛나는 세상이 진영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단다. 골수이식이 끝나면 우리 눈부신 태양아래 땀내나도록 그리운 세상으로 힘껏 뛰어가보자!!!

귀천

천상병 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달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서울 인사동의 자그마한 찻집, 모과차와 유자차의 진한 향기가 세상에 찌든 마음을 스르르 풀리게 하는 곳, 귀천(歸天)

그 곳엔 순수한 눈으로 이 세상에 소풍 다녀간 시인 천상병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마산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인 시인 김춘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는 '강물'로 <문장>지에 추천, 이미 어린 시인이었다.

서울대 상대에 진학, 학교 성적도 꽤 좋았던 그에게 1967년 어둠의 그림자가 덮쳐왔다. 동백림 사건으로 정보부에 끌려가 세번이나 전기 고문을 받은 것이다. 수없이 까무러쳤다가 회생하기를 반복, 6개월의 고초 끝에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만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채 폭음을 하고 떠돌이 시인으로 거리를 헤맸다. 그러던 중 그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료 문인들은 어느 길가에서 행려병자로 쓰러져 눈을 감았다고 생각해 그를 기리는 유고시집[새]를 출간했다. 그러나 그 시각,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살아있는 시인의 유고시집이 나오는 헤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병원에 있는 그에게 친구 누이 동생이었던 문순옥이 병문안을 왔다. 그녀는 정성으로 간호를 했고, 그 역시 그녀의 말이라면 잘 들었다. 마흔셋의 천상병, 서른 여섯의 문순옥은 결혼을 했다. 쌀 한 되 살 돈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부는 행복했다. 아이를 유난히 좋아했던 천상병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기고문을 두 번만 받았어도 아기를 볼 수 있었는데…”

하고. 날마다 머리를 매만져 주고 발을 씻겨 주는 아내를 가리켜 그는 ‘하나님이 숨겨 두었던 천사’라고 했다. 그리고 22년동안 단 한번도 떨어져 지내지 않았다.

향수를 양주로 알고 몰래 들고 나와 단숨에 들어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사람. 마음에 차면 “요놈아, 요놈아!”하며 친구를 삼았고, <브람스 교향곡4번>을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아해 눈물을 흘렸던 시인. 하루에 용돈 2천원으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나이! 장모님을 ‘엄마’라 부르며 무척 따랐고, 그 엄마의 장례비를 걱정했던 착한 사위…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도 걱정을 하지않고 그저 만나는 선배나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요새돈으로 돈백원 얻으면 그것으로 넉넉하게 생각한 사람. ‘좋다, 좋다, 참 좋다’를 연발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라고 예쁜 아내와 후덕한 장모님과 반갑의 담배, 한병의 맥주가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쓰냐고.

늙고, 초라한… 하지만 누구보다도 순결한 영혼을 가진 천사… 어찌보면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강박하고, 깨끗하지 못한 이 세상에 힘이 되어 주라고 하늘에서 보낸 천사일런지도…

1993년 그가 세상과 작별을 고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평생 평화만을 쫓던 파랑새가 하늘로 돌아갔다.”

그의 시는 적당한 알코올도수가 감춰져 있어서 무심코 읽는 독자들을 취하게 한다.

기자탐방

김두현(기증자)

골수채취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찾아간 입원실에서 김두현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김두현씨는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을 지닌 24세 청년이었습니다.

1.본인소개를 해주시겠어요..

- 2남1녀 중 막내로 부모님과 형은 고향인 안동에 계시고 현재 실로암 시각 장애인 복지관

에서 컴퓨터 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교육받는 분들과 같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학교를 나와서 안마, 침술을 잠시 했었고 한국점자도서관에서 2년정도 일을 한 경험으로 작년에 현재의 복지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 기증하게 된 동기나 계기는..

- 저를 잘 따르는 후배가 안암에 걸려 하늘나라로 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지금까지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자 장기, 시신, 각막 기증을 신청하였고, 또 골수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기증 후 느낀점은...

- 원래 2000년 8월에 기증하기로 했었는데 병원 사정상 연기되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몸 관리도 하고 신경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연락이 온데다가 너무 바빠 몸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증하게 되어 오히려 제 골수를 받는 환자분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골수가 좋았는지를 제일 먼저 물어보았지요. 또 한편으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약간은 무서워 제 자신이 많이 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하~

4. 골수기증을 망설이는 분들께...

- 망설이다 보면 기증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요?

5. 김두현씨의 골수를 받은 수혜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비록 작지만 제가 도움이 되어 건강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저 같은 장애인을 조금씩 배려하면서 살아 주세요!

‘정상인과 따로라는 생각대신 같이 나아간다고 생각해야 따라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김두현씨의 모습이 여느 정상인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워싱턴 선생님

레스 브라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른 반 교실로 들어갔다. 내가 교실로 들어가자 그 반 담임인 워싱턴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나더러 칠판에 가서 어떤 문제를 풀어보라고 지시하셨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그 분이 물으셨다.

“왜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내가 대답했다.

“전 이반 학생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건 상관없다. 어서 칠판으로 가라.”

난 다시 말했다.

“그래도 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또 물으셨다.

“왜 못한다는 거야?”

나는 약간 당황했기 때문에 잠시 더듬거리다가 말했다.

“전 정신지체 아동이거든요.”

그 분은 책상에서 일어나 나한테로 다가오더니 내 눈을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너의 진짜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워싱턴 선생님의 그 말씀은 나 자신에 대한 오랜 편견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한편으로는 다른 학생들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특수반에 소속된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견해에 결코 얼마일 필요가 없다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크나큰 해방감을 안겨 주었다.

그렇게 해서 워싱턴 선생님은 내 마음속에 나의 스승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나는 두 번이나 학교에서 낙제를 한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정신지체 아동으로 판명되었고, 그 결과 다시 4학년으로 내려가야만 했다. 중학교 2학년 때에도 또 다시 낙제를 했다. 그런데 워싱턴 선생님이 내 인생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다.

그 선생님은 괴테의 정신을 실천하는 분이 셧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판단하면 그는 더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그를 미래의 가능한 모습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그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워싱턴 선생님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셨으며, 그런 사실을 학생들 자신이 알게 했다. 내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일 때 하루는 그 선생님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분은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각자는 너희들 안네 위대함을 지니고 있다. 너희들은 특별한 어떤 것을 갖고 있다. 너희들 각자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만일 너희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가지 자신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인간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이 지구에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만들었고, 너희의 학교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 나아가 너희가 속한 사회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 너희는 수백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생님은 졸업반 학생들에게 말하고 계셨지만, 나에게도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한 연설처럼 들렸다.

졸업생들은 그분이 연설을 마치자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다. 나중에 나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을 만나서 말했다.

“워싱턴 선생님,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께서 졸업생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강당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물으셨다.

“넌 거기서 뭘 하고 있었니? 넌 아직 2학년이잖니?”

내가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의 연설하시는 목소리가 강당 문틈으로 들렸어요. 그 연설은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선생님께선 학생들 모두가 내면에 위대함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안에도 위대함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 분은 말씀하셨다.

“물론이다. 미스터 브라운”

“하지만 제가 영어 과목과 역사 과목에서 낙제한 건 뭐죠? 그래서 여름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건 뭐죠? 그건 뭔가요, 선생님? 전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확실히 실력이 떨어져요. 제 남동생과 여동생은 벌써 마이애미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데 저는 그 만큼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관없다. 그것은 단지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걸 의미할 뿐이지. 너의 학업 성적이 네가 누구이며 너의 인생에서 네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건 아니다.”

“전 어머니께 집을 사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가장 큰 제 소망이에요.”

“그건 언제나 가능하단다. 미스터 브라운.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분은 다시 걸어가셨다.

“워싱턴 선생님?”

“또 뭐냐?”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선생님.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을 잊지 말아 주세요. 언젠가 선생님께서는 제 이름을 듣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만들겠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꼭 해낼 거예요.”

학교는 나에게 정말 힘들었다. 사실 나는 성적이 형편없어도 한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좋은 아이로 평판이 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재미있는 아이였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또한 나는 겸손하고 예의바른 학생이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낙제 성적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급시키곤 했다. 그것은 오히려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워싱턴 선생님은 달랐다. 그분은 내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분은 내게 책임을 지게 했다. 동시에 그분은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충분히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내가 특수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선생님은 3학년 때 나의 지도교사가 되어 주셨다.

대개 특수반 학생은 연극과 연설 과목을 배우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에서 특별 조치를 취해 내가 워싱턴 선생님 밑에서 그 과목들을 배우게 했다. 교장은 워싱턴 선생님이 내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끈끈한 애정을 이해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학업 성적이 나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로 나는 우등상장을 받았다. 무엇보다 나는 연극반 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었다.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우등생이 되어야만 했다. 그것이 학교의 교칙이었다. 마침내 우등생이 된 것은 내게는 하나의 기적이거나 다름없었다.

워싱턴 선생님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림을 재구성해 주셨다. 내가 가진 정신적인 조건과 외부 환경을 넘어서 내 자신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러서, 나는 다섯편의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텔레비전에 내보냈다. 내가 제작하고 출연한 프로그램 「넌 그만큼 가치가 충분히 있어」가 마이애미 주의 교육방송 텔레비전에서 방송될 때, 나는 몇몇 친구들을 시켜 워싱턴 선생님께 전화를 걸게 했다. 그리고 나는 전화기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이윽고 선생님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내게 장거리 전화를 거셨다.

수화기를 들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미스터 브라운을 바꿔 주시겠소?”

“전데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내가 누군지 자네도 잘 알텐데.”

“아, 워싱턴 선생님이시죠? 맞죠?”

“자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었군. 안그런가?”

“네, 선생님 약속드린 대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 레스브라운은 흑인으로서 <포춘>지가 선정한 5백대 기업체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가장 저명한 연사 중의 한 사람이며, 미국 전역을 돌며 전문적인 세미나 강사로도 활약중이다. 또한 그는 PBS 텔레비전 방송의 특별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명성이 높고,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다.